



저기... 가을이 오네 지리산 노고단(1507m) 정상에 가을이 다가옴을 알리는 고추잠자리떼가 비행하는 가운데 청명한 날씨와 하얀 구름, 태극모양으로 굽어치는 섬진강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주말 막바지 피서객들이 노고단을 찾아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구례군 제공>

“탈 고흥 막아라” 일자리 늘리고 귀촌 지원

郡, 해마다 1000여명 감소
소멸위험 228개 시·군 2위
전남 첫 인구정책과 신설
교육·환경·복지 개선 총력

가 줄어들자 고흥군은 인구 담당 부서를 기존 팀 단위에서 인구정책과로 격상해 신설했다. 고흥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라 매년 인구가 1000여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서 소멸위험 지수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번째로 높게 나타난 지역이다. 신설된 인구정책과는 인구정책·일자리·출산장려·귀촌 지원을 총괄한다.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도시민들이 고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어·귀촌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부서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귀촌·귀향 고흥 1000호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도시민을 위해서는 귀농인의 집과 체류형 보금자리운영, 농촌문화 팜 투어, 현장실습(멘토-멘티), 농업배움터귀촌학교,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인구유출 최소화를 위해 지역명문고와 특성화고 육성,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등 교육부담 지원에 전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 사랑 고흥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청년 정착을 지원하고 가업을 잇는 청년 창업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국공어린이집 확대 등 교육, 복지, 문화 등 삶의 질 서비스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 유지와 청년층이 증가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건강한 인구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보성 점백면 침수 피해 걱정 끝 2021년까지 367억원 투입 재해위험 개선 정비사업

보성군이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점백면(도안리, 석호리, 평호리) 일대에 367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보성강 1지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점백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보성강1지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하천 범람 및 침수 예방을 위해 ▲지방 하천 정비(4.2km) ▲배수 펌프장 설치(3개소) ▲고지 배수로(0.9km) 및 기존 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 상습 침수 피해 예방에 총력

을 기울일 전망이다. 점백면 도안리와 석호리, 평호리는 보성강댐 하류부로 집중 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 재해 취약 지역으로 보성강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불량 이 상습 침수의 원인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도 기상이변으로 증가되는 자연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안전하고 희망찬 보성군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몸에 좋은 우리 쌀 드세요”

곡성군 '쌀의 날' 홍보 행사



곡성군은 '쌀의 날' (8월18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7일 곡성고등학교 및 관내 유관기관 등에서 우리 쌀 활용 디지털 홍보 및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쌀의 날은 급감하는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8월 18일로 지정했다. 쌀 미(米)자를 '八+十+八'으로 풀어 쌀을 생산하는 데 여든여덟 번 농부의 손길을 거친다는 의미를 담았다. 쌀 소비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거리가 다양해진 데다가 밀가루 음식이 증가하면서 쌀을 찾는 소비자가 줄고 있고 또 쌀이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잘못된 상식도 쌀 소비에 악

영향을 주고 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매주 1회 '우리 쌀 디지털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흥겨운 율동으로 더위 탈출~

곡성군 레크리에이션 교실




곡성군은 관내 11개 읍·면 건강팔팔마을 경로당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더위 극복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곡성군은 8월 한 달 동안 곡성을 읍내1구 경로당을 시작으로 11개 읍·면 건강팔팔마을 경로당 11개소에서 무더위를 극복하며 덥고 근력강화 신체활동과 간접흡연 예방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입면으로 귀농한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가 노래, 율동, 금연 OX 게임 등을 진행하며 무더위로 몸과 마음 이 지친 주민들에게 상쾌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마을의 이장은

"참여하는 주민들 모두 호응도가 매우 높고 적극적이다"며 "시원한 무더위쉼터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하며 주민들과 화합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 율동처럼 무더운 여름날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고흥 유자 흥홍서 우수성 홍보 구례군, 장애인 주택 개조

고흥군이 '2018년 흥홍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고흥유자 식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까지 흥홍에서 열린 '2018 흥홍식품박람회'에 고흥유자 6차사업단과 두원농협, 한성푸드영농조합, 서광식품, 에덴식품영농조합이 참가했다. 2018 흥홍식품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신선 농산물과 가공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40개국에서 2만5000명이 참가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고흥유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각 업체 제품의 수출판로 개척, 신뢰도 확보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구례군이 '201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2만3000원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장애인의 소득기준과 장애 종류·등급, 주택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20세대로 가구당 사업비는 380만원 이내이며 총사업비는 7600만원이다. 문턱낮추기와 보조 손잡이 설치, 주택 출입로 보수, 장애인용 입식부엌 및 욕실개조 등 장애유형에 맞게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6834-7400